

해남 스님 '화엄경' 법회

# 바로 믿고 알고 실천해 '부처님 법계' 가자

강사 : 해남 스님 (통도사 율주)

일시 : 2009년 4월 28일

주제 : <화엄경> 보현행원품

장소 : 서울 기원정사(구 흥제사)

주최 : 불천강경협회

셋째는 널리 공양을 올리겠다는 소원입니다. 시방 삼세에 계시는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에게 향으로 공양 올리고 등으로 공양 올리는 물질적인 공양도 있고 보다 수승한 법공양도 있습니다. 법공양이라는 것은 경전에서 설하신 대로 수행하는 공양입니다. 보시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면 보시하고 인욕 하라는 가르침을 받으면 인욕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보현행원품'에서는 중생을 이익케 하는 공양, 중생을 섬수하는 공양,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 부지런히 선근을 닦는 공양, 보살의 사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떠나지 아니하는 공양이 있습니다.



해남 스님.

진나라 때 번역한 60권 <화엄경>에서는 교주로 노사나불을 말하지만 당나라 때 번역한 80권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을 이야기합니다. 중국 화엄4조로 알려진 청량 장관 스님은 '화엄경'의 교주는 진신과 응신에 걸림이 없는 부처님 더 나아가 십신(十身)에 걸림이 없는 부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을 설하는 본(說主)이 부처님인 경우는 39품 가운데 비교적 내용이 짧은 아승지품과 여래수호광명공덕품의 두 품뿐입니다. 나머지 품은 모두 그 지위에 어울리는 보살님들이 법을 설합니다. 특히 마지막 품인 '입법계품'에서는 53선지식이 모두 그 법회의 설주가 되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보현보살은 '이치'를 표현하니 문수와 보현을 합하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된다"고 장관 스님이 말씀했듯 <화엄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식으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꼽습니다. 이중 굳이 한분을 꼽는다면 보현보살을 말합니다.

<화엄경> 중 보현보살이 설법하신 부분은 제1회 전체인 '세주묘엄품' '여래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과 제7회 '십정품' '십통품' '십인품' '보현행품'과 '여래출현품', 제8회 '이세간품' 그리고 53선지식의 최후 선지식입니다.

즉, <화엄경>의 처음과 끝이 보현보살의 설법인 것입니다. <화엄경> 큰 강령인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해 바로 부처님 법계에 들어가자'는 단계 핵심은 모두 보현보살이 설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을 여래 장자(長者), 법계(法界) 원왕(願王)이라고도 합니다.

53선지식의 마지막 선지식인 보현보살이 설하는 80권 <화엄경> 마지막 두 계송을 소개하면

세계 티끌 마음생각 헤아려 알고  
큰 바다의 물 다 마실 수 있고  
허공을 헤아리고 바람을 꿰뚫더라도  
부처님 공덕 다 설할 수 없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공덕의 바다를 듣고  
기뻐하여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낸다면  
칭찬하고 찬양한 바와 같이 다 얻으니  
삼가 여기에 의심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첫 번째 계송의 뜻은 '삼천대천세계를 티끌로 만들어 그 수자와 같은 중생들의 갖가지 생각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고 향수해와 같은 큰 바다의 물 다 마실 수 있고 허공을 헤아릴 수 있고 바람을 꿰뚫 수 있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계송은 '만약 어떤 사람이 위에서 설명한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낸다면 본인이 칭찬하고 찬양한 바

와 같이 언젠가는 본인이 부처님이 얻은 공덕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근신하여 여기에 의심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60권 <화엄경>과 80권 <화엄경> 끝맺음과 달리 별도 유행돼 <보현행원품>으로 널리 독송되는 40권 <화엄경>의 제40권에는 '광대무변한 부처님 공덕은 나와 같은 보살이 다 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방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이 불가설불가설 불찰미진수 겁이 다하도록 언설하더라도 다 말할 수 없다고 설한 다음에 만약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열 가지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열 가지 서원 가운데 네 가지만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을 예배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방 세계에 계시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을 내가 몸과 말과 생각을 깨끗이 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화엄 법성도리에서 보

## 모든 부처님 공경·공양... 모든 사람 부처로 보라는 것 참회로 업장 소멸... "허공계와 중생계 다할 지라도" 발원

면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신이 육도에 유전하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라고도 말하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세가지는 차별이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을 예배 공경하는 수행'을 닦는 보살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비롯해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부처님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물들에게도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똑같은으로 꿈틀거리 줄 아는 것은 모두 불성이 있는 것으로 믿어, 그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식물도 함부로 밟아버리지 않도록 자연 환경까지도 함부로 파괴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래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방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을 칭찬하는 수행입니다. <화엄경>에는 부처님을 찬하는 계송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주묘엄품'은 화엄법회에 참석한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 성도를 축하하고 법문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성도를 축하하러 와서 각각 보고 느낀 대로 부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활용해 인간 상호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살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 무수한 윤회자를 칭찬하고 푸른 산 흐르는 물과 심지어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중생을 이익케 하는 공양'은 각자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남에게 이익 되는 일을 해 나다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라 의미합니다. '중생을 섬수하는 공양'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부처님을 향한 공양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이란 중생의 고통을 가엾게 여겨 그것을 내가 대신하여 주는 것이 부처님의 뜻에 계합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선근을 닦는 공양'이란 것은 부지런히 일체의 착한 일을 닦는 것이 바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라 뜻입니다. '보살의 사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란 보살의 사업을 버리면 일체중생을 즐겁고 이익 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리심을 떠나지 아니하는 공양'이란 항상 보리심을 지니고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업장을 참회해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무시이래로부터 지은 한량없는 죄업을 몸과 말과 생각을 깨끗이 해 모두 참회하고 깨끗하게 살겠다는 발원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소원을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 때까지 생각이 이어져 끊어짐이 없게 하여도 몸과 말과 생각에 피로하거나 싫어함이 없이 나의 원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서울 흥제동 기원정사(회주 성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불천강경법회(不千講經法會)'는 재가수행의 마음터를 울리는 도심 속 수련회다. 불천강경법회에 참가한 불자들은 <화엄경>과 <역암록> 등을 번갈아 익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린 법회에서 통도사 전제사 해남 스님은 초청법문으로 <화엄경> 보현보살의 심중대원을 설했다. 은하사 승가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제방 강원에서 강의한 대강백으로 더 잘 알려진 해남 스님의 법문을 통해 광대한 보현행원 수행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드디어 기다리시던 하권이 출간되었습니다!!”**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꿰뚫어 보는 법!

**두 번째 백초 스님의**

- \* 귀장술12신공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12신공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공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공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12신공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인緣에 긴 액운厄運암시록
-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역운 작귀탈 정단법
-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 소송·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성
-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공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 12신공에 암장된 악령귀신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 前生의 夫婦인연 원질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작귀신론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백초스님  
하권/720면/청가 120,000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百超律歷學堂 | 임금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 신한 010-6413-4443 임현주